

관광연구팀

2022년 2월 MICE 산업 동향

2022. 3.

목 차

1. 2021년 컨벤션 개최지 경쟁지수 분석	3
2. 해외시장 동향	9
3. 국내시장 동향	15

1. 2021년 컨벤션 개최지 경쟁력 지수 분석¹⁾

가. 게이닝엣지 개최지 경쟁력 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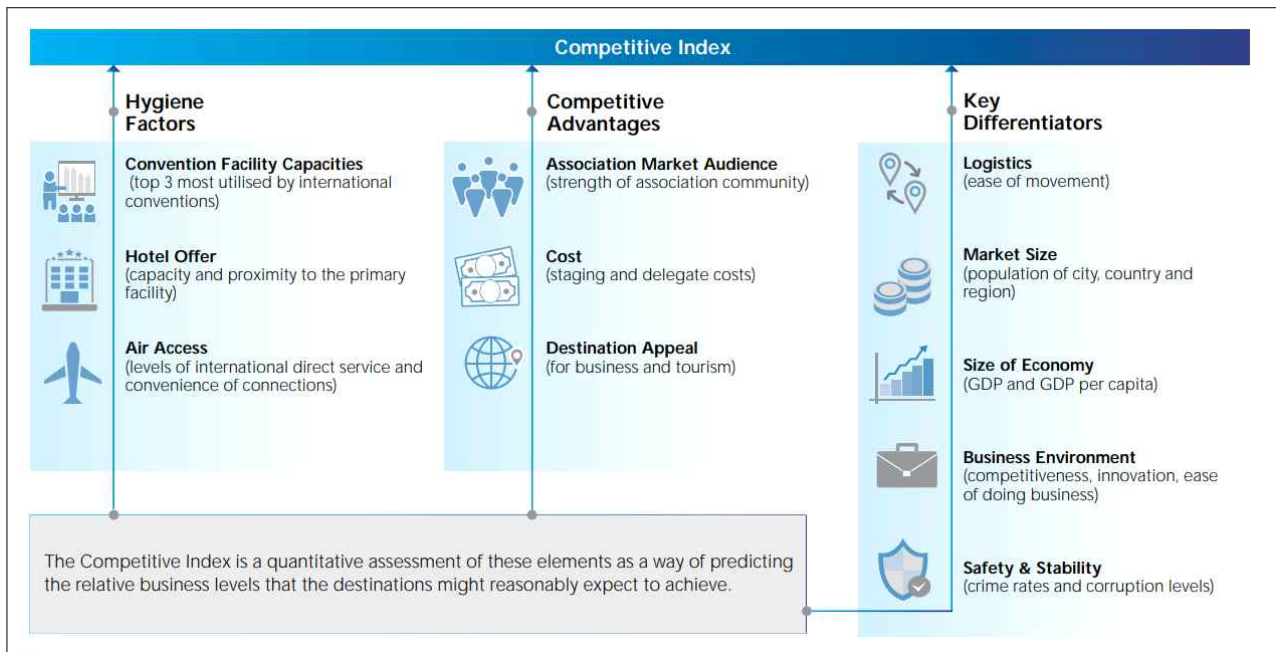
- 글로벌 컨벤션산업 컨설팅회사인 게이닝엣지(GainingEdge)가 4번째 연례 국제 컨벤션 개최지 경쟁지수를 발표함
- 2021년 개최지 경쟁력 지수는 11가지 경쟁력 요소에 대해 상위 100개 목적지의 순위 및 경쟁력 포인트를 제시함
- 2021년 경쟁력 지수 보고서는 2020년과 동일한 도시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경쟁력 지수의 속성(회의 장소, 항공 접근성, 대형 시장과 경제 강국)을 분석한 결과임
-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속성을 척도로 분석한 이유는 코로나 19로 가상 또는 하이브리드 개최된 행사가 모든 컨벤션 개최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임
 - 게이닝엣지는 코로나19 발생한 컨벤션의 변화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의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한 후 완전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ICCA 100위권(2017년~2019년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개최지 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1) 코로나19로 인한 경쟁력 지수 모델 변화 추이

- 게이닝엣지가 컨벤션 개최지의 경쟁력 지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Factor 11가지는 다음과 같음
 - 컨벤션 시설(Convention facility capacities): 국제 컨벤션 개최 빈도
 - 호텔 제공(Hotel offer): 컨벤션 개최지와 근접성
 - 항공 접근성(Air access): 국제 서비스 수준과 연결 편의성
 - 협회 참가자(Association market audience): 협회 커뮤니티의 견고함
 - 여행 목적지의 매력(Destination appeal): 비즈니스 및 관광을 위한 목적지의 매력
 - 저렴한 비용(Staging and delegate costs)

1) 보 고는 글로벌 컨벤션산업 컨설팅회사인 게이닝엣지(GainingEdge)에서 발간한 'Competitive Index 2021'에서 일부를 발췌함(출처: <https://ftnnews.com/images/stories/documents/2022/International-Convention-Destination-Competitive-Index-2021.pdf>)

- 로지스틱 (Logistics) : 이동의 용이성
- 시장 규모 (Market size) : 인구
- 경제 규모 (Size of economy) : 1인당 GDP
- 비즈니스 환경 (Business environment) : 경쟁력, 혁신, 비즈니스 용이성
- 사회적 안정성 (Safety & Stability) : 범죄율 및 부패 수준



[그림 1] 게이닝엣지(GainingEdge) 경쟁력 지수 11가지 속성

-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 모든 MICE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모든 개최지의 경쟁력 지수가 일괄적으로 하락해 상대적으로 개최지 간의 비슷한 순위를 유지함
- 개최지 중에서 항공 접근성, 대형 컨퍼런스 홀의 유무, 목적지 매력력이 강한 레저 도시 등의 항목에 속하는 개최지의 경쟁력 지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강력한 협회 커뮤니티와 융통성 있는 미팅 인프라가 구축된 곳은 상대적으로 경쟁력 지수가 소폭 감소함
- 코로나19로 인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개최지의 경쟁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해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회복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회복 전략을 위해서는 4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지역 지도자와 협력해 국제적 명성을 활용해야 함
 - 제품 제공의 유연성을 높여야 함
 -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구현해야 함
 - 국가 및 지역 시장에 집중해야 함
- 다음 <표 1>은 게이닝엿지 개최지 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0년 대비 2021년의 경쟁력 지수 랭킹 100위 중 서울을 포함한 상위 30개의 국제 컨벤션 도시를 보여줌
 - 서울은 2020년과 동일한 18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에서는 부산이 51위(전년대비 1위 감소), 제주도가 54위(전년대비 1위 감소)를 기록함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서울 20위, 부산 49위, 제주도 65위임
 - 2019년과 동일한 속성으로 경쟁력 지수를 분석했으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랭킹이 상승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수치임

<표 1> 전세계 국제 컨벤션 경쟁력 지수 랭킹 및 스코어

도시	2021년 랭킹	2020년 랭킹	2021년 스코어	2020년 스코어	랭킹 증감	2019년 랭킹
파리	1	1	722.5	764.1	=	1
뉴욕	2	3	695.5	715.8	+1	5
싱가포르	3	2	680.6	744.9	-1	3
베이징	4	7	678.7	681.5	+3	6
도쿄	5	5	671.8	701.7	=	4
방콕	6	8	642.1	680.7	+2	18
런던	7	10	638.8	673.4	+3	16
바르셀로나	8	4	623.8	704.2	-4	2
이스탄불	9	15	622.4	656.8	+6	17
워싱턴	10	14	622.2	658.8	+4	7
시카고	11	13	620.7	659.6	+2	10
홍콩	12	6	614.4	691.1	-6	11
상하이	13	20	610.3	613.8	+7	23
보스턴	14	11	601.6	665.3	-3	9
베를린	15	11	596.1	659.7	-3	13
쿠알라룸푸르	16	9	591.8	679.8	-7	12
암스테르담	17	17	585.2	649.8	=	15
서울	18	18	571.9	633.8	=	20
토론토	19	16	569.7	653.4	-3	14
비엔나	20	22	565.1	608.7	+2	24
마카오	21	25	561.1	599.8	+4	30
발리	22	26	549.3	597.9	+4	28
밴쿠버	23	28	538.6	590.7	+5	27

도시	2021년 랭킹	2020년 랭킹	2021년 스코어	2020년 스코어	랭킹 증감	2019년 랭킹
브뤼셀	24	33	537.1	568.8	+9	35
마드리드	25	23	534.9	603.2	-2	21
밀라노	26	19	534.5	616.0	-7	19
멜버른	27	27	534.4	597.7	=	29
모스크바	28	38	533.0	556.5	+10	37
몬트리올	29	29	532.8	582.3	=	31
로마	30	24	532.2	602.2	-6	26

2) ICCA 랭킹과의 차이 분석

- 게이닝엿지는 ICCA 랭킹과 경쟁력 지수의 랭킹을 비교해 어떤 개최 여행지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역을 경쟁 도시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부다페스트, 아테네, 리스본, 프라하,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등이 기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분석되었으며, 미국 도시는 경쟁력 있지만 대부분 큰 도시의 시장에 집중돼 있어, ICCA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임
- 서울은 차이 분석에서 자세하게 다루지지는 않았지만, ICCA 개최실적 통계 보고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게이닝엿지 경쟁력 지수에서 2019년~2021년까지 20위, 18위를 차지한 것과 2019년 ICCA 랭킹에서 15위를 차지한 것을 비교했을 때, 서울은 경쟁력 지수보다 5위 높은 ICCA 랭킹을 차지하고 있음

3) 대륙별 경쟁력 지수 비교

- 각 도시는 대륙별 경쟁력 지수 비교를 통해 주요 경쟁 도시의 경쟁력 수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아시아 대륙 중 싱가포르를 국제 협회가 주관한 행사를 개최한 횟수가 많으며, 전반적인 경쟁력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컨벤션 개최지로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이 빠른 항공 여행 회복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면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서울은 8개의 아시아 대륙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쿠알라룸푸르보다 약 20점 낮고, 싱가포르보다 109점 낮은 스코어를 기록함

<표 2> Top 8 아시아 대륙 경쟁력 지수 랭킹 및 점수

도시	전세계 2021년 랭킹	스코어
싱가포르	3	680.6
베이징	4	678.7
도쿄	5	671.8
방콕	6	642.1
홍콩	12	614.4
상하이	13	610.3
쿠알라룸푸르	16	591.8
서울	18	571.9

4) 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성장 가능한 국제회의 시장

- 게이닝엿지는 국제회의 시장의 잠재력과 경쟁력에 초점을 두고, 가능성이 있는 6개의 도시로 베이징, 이스탄불, 모스크바, 부다페스트, 플로렌스, 겐트를 선정함

<표 3> 경쟁력 및 잠재력을 갖춘 국제회의 시장 Top 6

도시	주목할 점
베이징	- 베이징은 전년 대비 2.75 스코어가 하락하는데 그치면서, 세계 4위 랭킹으로 도약함 - 아시아 가운데 경쟁력 있는 컨벤션 도시 중 2위를 차지함 - 세계 5대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을 가진 도시로 꼽히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빠른 회복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을 할 잠재력을 갖고 있음
이스탄불	- 이스탄불은 2015년 약 159개의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최고 기록을 세운 이후, 정치적 불안정으로 큰 하락세를 경험함 - 2017년~2019년 129개의 국제 컨벤션이 개최되어 2019년 ICCA 44위를 기록함 - 이스탄불은 우수한 여행지로 경쟁력 지수에서 세계 9위를 차지했으며,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2017년 이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모스크바	- 모스크바는 접근성과 인프라가 뛰어난 글로벌 허브라는 점에서 경쟁력 지수를 확보해 세계 28위를 차지함 - 비록, ICCA에서 70위를 기록했지만, 모스크바는 많은 지역 지식인들이 많고, 여행 목적지로서의 역량이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국제 컨벤션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부다페스트	- 부다페스트는 코로나19 이전 3년 동안 345개의 국제회의를 개최했으며, ICCA 순위에서 Top 30위 도시에 들게 됨 - 최근 3년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회의의 횟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전략적으로 자산을 활용한다면 국제회의 시장에서 경쟁할만한 입지를 갖춘 동유럽 도시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플로렌스	- 플로렌스는 유럽 컨벤션 개최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도시로 알려져 있음



도시	주목할 점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강력한 레저 세그먼트를 보유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3년간 개최된 국제회의 수가 감소했으며, ICCA 88위를 기록했지만, 도시가 주요 경쟁우위를 탐색하고 활용한다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
겐트	- 겐트는 유럽 대학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도시나 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지역 학계와 강력한 협업을 맺어 겐트의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을 활용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임



2. 해외시장 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확장사업 및 보수 공사 실시 계획 발표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 MBS)는 당초 확장사업의 완공일로 예정했던 2025년에서 1년 미뤄 2026년까지 기존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임
 - 1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호텔 객실과 스위트룸, F&B, 등 통합 리조트 개선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2023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럭셔리 관광시장을 중심으로 관광 회복을 선도할 계획임
 - 확장사업 후 마리나베이샌즈는 공연장, 약 1,000개의 호텔 객실, 수영장, 스카이라이프, 대형 홀, 전시장 등이 생길 예정임
- 싱가포르가 마리나베이샌즈의 확장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한 것은 싱가포르가 본격적으로 럭셔리 관광 산업에 갖는 자신감과 업계 최고의 럭셔리 관광을 제공해 관광객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그림 2]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 MBS) 호텔 전경

■ 말레이시아: 컨벤션전시주최공급협회 정부에 3월 1일 국경 개방안 검토 촉구

- ‘말레이시아 컨벤션전시주최공급협회 (Malaysian Association of Convention and Exhibition Organisers and Suppliers, MACEOS)’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이르면 2022년 3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의 국경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라는 국가회복위원회 (National Recovery Council’s, NRC)의 권고를 검토할 것을 촉구함
 - 2월 11일, 이스마일 사브리 야코프 (Ismail Sabri Yaakob) 총리와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아직 국가회복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힘
- 컨벤션전시주최공급협회 (MACEOS)의 프랜시스 테오 회장은 국경을 재개해 국제 비즈니스 행사를 재개하는 대신, 강력한 예방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2020년 6월, 컨벤션전시주최공급협회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전 세계 모범 사례가 포함된 포괄적인 안전 지침을 제공했으며, 해당 지침에는 행사 장소의 위생 점검, 대표단 헬스 체크, 군중 컨트롤, 접촉 추적 검사,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유니버설 홀리데이 여행 (Universal Holidays Travel and Tourism) CEC인 자히라 타히르 (Zahira Tahir)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본부를 둔 여행 에이전트의 말레이시아에 인센티브 여행에 관심을 보였지만, 입국 요건과 국경 개방 등 정부의 결정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 밝힘

■ 대만: 대만정부, 3월부터 타이완 입국 검역 완화 계획 발표

- 대만 정부는 정상적인 생활과 국경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해 오는 3월부터 타이완 입국객에 대한 포괄적 입국 검역을 완화할 계획이라 밝힘
 - 대만은 팬데믹 동안 완전한 국경 폐쇄를 시행한 적은 없지만, 입국자는 시민과 외국인 거주허가증 소지자로 제한했으며, 2주간 격리 기간을 갖도록 해왔음
- 정부는 완화된 입국 검역을 3월 중순부터 10일 내외로 줄일 계획으로, 외국 비즈니스 여행객의 입국에 대한 트레블 버블을 허용할 계획임
- 대만은 이러한 검역 완화에 맞춰 의료 장비 준비와 백신 접종 확대 등을 가속화 할 계획임
 - 대만은 현재 약 3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정부는 50%에 도달할 경우 입국 검역을 완화할 계획임

나. 미주 지역

■ 미주: 댈러스, 컨퍼런스 홀 충원을 위한 새로운 컨벤션센터 건설 계획 발표

- 댈러스 시의회는 현재 ‘케이 베일리 허치슨 컨벤션 센터(Kay Bailey Hutchison Convention Center)’ 근처에 250만 평방 피트의 새로운 컨벤션센터를 짓는 계획을 승인함
- 새로운 컨벤션센터는 80만 평방피트의 전시공간과 10만 평방피트의 컨퍼런스 홀을 포함해 40만 평방피트의 공간을 갖출 예정으로, 2024년 공사를 시작해 2028년 개장할 것으로 예상함
- 새로운 컨벤션센터는 트리니티 강과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야외 이벤트 테라스가 있는 대형 홀이 들어설 예정이며, 레스토랑, 숙박 시설, 엔터테인먼트 등의 옵션을 갖춰 댈러스 시내와 연결되어 새로운 여행 목적지가 될 것으로 보임
- 댈러스는 부족했던 컨퍼런스 홀과 공간을 충원해 MICE 주최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이며, 컨벤션센터를 통해 댈러스의 연간 방문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그림 3] 새로운 ‘케이 베일리 허치슨 컨벤션센터(Kay Bailey Hutchison Convention Center)’ 조감도

■ 미주: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을 고려한 건축 사업 진행

- ‘게이로드 로키스&컨벤션센터 (Gaylord Rockies Resort & Convention Center)’는 에너지 성능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환경보호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의 에너지스타 (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함
 - 에너지스타 인증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기반으로 상위 5%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인증임
- 수지 하트 (Suzy Hart) 총괄 매니저는 ‘게이로드 로키스 리조트&컨벤션센터’의 에너지 절약은 컨벤션센터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과 보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에너지스타 커머셜 산업 지부장인 장 루파나치 (Jean Lupinacci)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물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미국 환경보호청의 에너지스타 인증 획득에 앞장서고 있고, 평균적으로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건물은 에너지를 35% 적게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5%까지 감소시켜,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함
- 또한,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리조트 월드 라스베이거스 (Resorts World Las Vegas)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친환경 설계를 통한 환경 영향 감소와 지속가능성 달성에 집중하는 등 그린 빌딩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리조트 월드 라스베이거스의 지속가능성 책임자인 브랜든 모리슨 (Brandon Morrison)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통해 운영 전반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미국그린빌딩협의회 (U.S. Green Building Council, US GBC)’에서 개발한 친환경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LEED 골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밝힘
 - LEED 골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재활용 자재 활용, 친환경 건설 자재 사용, 지역 자재 활용 등이 있음

다. 구미주 지역

■ 영국: 지속가능한 행사를 위한 변화 적극 추진

- 지속가능한 이벤트를 지향하는 단체인 'Isla'는 최근 회원이 100명이 넘는 단체로 성장함
- Isla는 12개의 기관 및 공급업체 회원들과 함께 시작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으로 메뉴, 브랜드, 전시 주최자를 지원해왔음
- 현재, 600명 이상의 이벤트 전문가가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을 수강했으며, 올해에는 대면, 하이브리드, 디지털 행사의 배출 및 폐기물 데이터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인 'Trace'를 출시할 예정임
- Isla는 이벤트 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으며, 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할 계획임
- Isla의 공동설립자인 안나 압델누어(Anna Abdelnoor)는 지속가능한 행사와 전시 산업을 위한 효과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영국: 디지털 혁신을 위한 서비스 파트너와 계약 체결

- 센트럴 홀 메뉴 그룹의 '센트럴 홀 웨스트민스터(Central Hall Westminster, CHW)'가 사내 AV 제작 서비스 파트너로 화이트 라이트(White Light)와 7년간 800만 파운드(한화로 약 129억 7,68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60만 파운드 이상은 콘서트, 컨퍼런스, 전시회, 세미나 등의 행사에 사용되는 AV 장비를 개선에 사용되며, 장기 플랜으로 AV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사용될 계획임
- 센트럴 홀 메뉴 담당자인 폴 서던(Paul Southern)은 디지털 혁신은 앞으로 이벤트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AV와 기술에 대한 이해와 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갖고 있는 화이트 라이트와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밝힘
- 메뉴 책임자인 존조 글린(Jonjo Glynn)은 이벤트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센트럴 홀의 세계적인 행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 말함

라. 오세아니아 지역

■ 호주: 2월 21일부터 백신 접종 여행객에게 국경 전면 개방 예정 발표

- 호주는 2020년 3월 이후 거의 2년간 입국을 제한해 왔으나, 2월 2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받은 모든 여행객들에게 국경을 전면 개방할 예정임
- 그동안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선별된 국가들과의 무검역 여행 협정과 이민자, 유학생들에 한해 국경 개방을 허용했지만, 2월 21일부터는 전면 국경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힘
 -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역 검역 요건을 준수해야 함
- 호주 관광수출협회(Australian Tourism Export Council)의 피터 셸리(Peter Shelley) 이사는 국경 개방은 국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관광업계가 시장을 재개할 가능성을 제공했다고 밝힘

■ 뉴질랜드: 비즈니스 행사 취소 시, 정부가 90% 상당 비용 부담하는 재정 지원제도 발표

- 200명 이상 참가한 뉴질랜드 비즈니스 이벤트가 뉴질랜드의 '이벤트 트랜지션 서포트 페이먼트(Events Transition Support Payment, ETSP)'체계에서 처음으로 포함됨
- 2021년 11월 도입된 ETSP제도는 페스티벌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의 재정적 지원을 돕는 제도로, 당시 비즈니스 행사는 제외되었음
- 그러나, 2022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개최되는 비즈니스 행사 중, 보건 방침에 따라 개최가 취소되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90% 상당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예정임
- 비즈니스이벤트 아오테아로아(Business Events Industry Aotearoa)의 최고경영자인 리사 홉킨(Lisa Hopkin)은 뉴질랜드 정부가 비즈니스 행사 산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의적절한 발표로, 비즈니스 행사 개최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함

3. 국내시장 동향

■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국내 대표 글로벌 마이스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위한 도약

- 킨텍스(KINTEX)는 지난 2018년, 서남아시아 최대 규모인 인도 뉴델리에 건립되는 ‘인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 & Expo Centre, IICC)’ 운영권을 수주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전시면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고, 인도를 포함한 주변국까지 18억 명에 가까운 배후인구를 보유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 특히, 인도는 13억 인구가 밀집한 서남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코로나 19 확산 이전 전시회 성장세가 연평균 12%, 컨벤션 행사는 연평균 15%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던 곳으로 잠재가치가 기대되는 곳임
- 최근, 서울시 잠실 마이스(MICE) 시설 공모와 관련하여 민간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하우 전수와 글로벌 플랫폼화를 위한 변화에 주력하고 있음
- 일산 킨텍스의 글로벌 행보에 대해 서남아시아 최대 무역전시협회인 인도 IEIA의 회장 소냐 프라샤(Sonia Prashar)는 킨텍스는 아시아에서 보기 드물게 글로벌 주최사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모범적인 전시장 방역 성과 등으로 이미 전시장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함



[그림 4] 일산 킨텍스(KINTEX) 전경

■ 대전: 대전, 정부의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 개편으로 복합지구 지정에 차질 발생

- 대전시는 2월 10일 조기 준공을 앞둔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관을 중심으로 MICE 산업 메카 조성을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해왔음
 - 지금까지 국제회의복합지구에는 부산, 인천, 대구, 경기도 고양, 광주 총 5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6개 광역시 중 울산과 대전만 제외되어 있음
- 대전시는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 후, 올해 10월 개최될 UCLG총회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정부가 코로나 19로 해당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2021년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가 마무리되고 법령 개정이 이뤄지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연내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대전시는 MICE 산업 활성화에 차질이 생겼지만, 성공적으로 UCLG총회를 치르고 다양한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등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그림 5] 2022년 UCLG World 총회

■ 경상남도: 부산,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선정으로 국비 확보

- 부산시는 국가 공모사업인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사업’에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이 선정되어 2024년까지 국비 37억원을 확보함
- 따라서, 시는 K-MICE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MICE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공급과 수요가 매칭 가능한 비즈니스 창출 플랫폼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MICE 산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세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은 그간 미흡했던 신산업 창출·투자 연계 등을 보완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비즈니스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업 기반의 혁신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임
- 올해는 플랫폼을 기획하고, 내년에는 플랫폼을 구축해 2024년에는 민간 비즈니스 실증을 완료하는 3년간의 연차별 단계를 나눠 추진 할 계획임
 - (사)부산컨벤션산업협회, (사)부산정보기술협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관광공사, 벅스코가 주축이 되는 민·관 전문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메타버스 컨벤션 NFT(대체 불가 토큰) 거래·계약,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 개최, 융복합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한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 경제 혁신실장은 부산시 MICE 산업의 비대면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을 이끌어 세계적인 MICE 산업 선도도시로 시장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충청도: 지역 특색 살린 국제행사 유치 등 MICE 산업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 계획

- 충청도는 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행사를 유치해 도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충청도는 지난해 10월, 국제회의 유치 수요조사 결과, 8개 시군이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보였으며, 천안시 K-컬처 문화엑스포와 서천군 스마트 국제 그린 박람회, 서산시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등의 유치 방안을 분석 중임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2026년 완공되는 만큼 MICE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 국제 전시컨벤션 행사 유치에 유리한 환경도 조성할 계획임
- 도는 2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MICE 분야, 관광 축제 분야,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행사유치 전략’ 회의를 개최해 산업·환경·관광분야에 대한 개최여건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고,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함
- 도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행사 추진 의지가 있는 시군과 협력해 경제·산업·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행사 유치 후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7월 중 전략을 확정해 유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그림 6]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

■ 제주도: 세계여행관광협회(WTTC)가 부여하는 안전여행 스탬프 획득

- 제주도가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안전한 여행을 위한 국제 기준의 보건, 위생 권장 사항을 채택 및 준수하는 국가, 기관, 사업체에 부여하는 안전여행 스탬프를 획득함
-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는 항공, 공항, 여행사 등 9개 분야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보고, 안전스탬프를 부여하는데, 제주도는 숙박업, 음식업, 관광지, 교통업과 여행업 등 5개 분야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스탬프를 획득함
- 2021년 10월 말 기준 안전여행 스탬프 인증 목적지와 관광청, 업체로는 두바이, 호주, 괌, 필리핀, 포르투갈,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캐나다(온타리오주, 유콘주), 프랑스(파리), 일본(오키나와 호텔협회) 등 400여 곳이 있음
- 이번 스탬프 획득으로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여행 스탬프’를 부여했으며, 도는 WTTC의 인증마크와 제주형 인증마크를 동시에 부착시켜 안전한 숙박·음식시설, 관광지임을 널리 홍보할 계획임
- 특히 이 안전여행 인증으로 향후 MICE 산업 등 국제적인 행사나 대회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그림 7] 안전여행 스탬프